

나주시, 추석 대목 앞둔 나주배 수확 현장 컨설팅

금천농협과 함께 금천배공선회 회원 30여명 대상

배 수확 요령·토양 관리법 등 고품질 생산·유통 다짐

전국 최대 배 생산지인 나주시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을 위한 현장 컨설팅으로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는 최근 금천농협과 함께 금천배공선회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배 농가 과수원 현장 컨설팅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저온기 과원 관리, 5월 착과·토양 관리, 6월 수확배 컨설팅에 이어 이날 컨설팅은 수확을 앞둔 고품질 나주배 수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최근 소비자 선호가 높은 신품종 배인 '신화', '창조' 배 과원에서 과실품질 평가, 당도계를 이용한 수확 요령, 수확 후 토양 관리법, 신

화·창조배 시식 등이 이뤄졌다.

금천산포농업인상담소(소장 최진호), 금천농협(조합장 박하식)은 올해 이른 봄부터 배 과원 토양분석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시비 처방, 배숙음 작업, 여름철 순치기 등 생육 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왔다.

현장컨설팅에 참석한 금천배공선회장 김정중 씨는 "지금까지 추석용 배는 손으로 잡아봐서 큰 과일 위주로 수확해 왔지만 현장 컨설팅을 통해 당도가 높은 과실의 판매 요령과 수확 방법을 터득했다"며 "올 추석 소비자에게 맛있는 나주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개화기 저온 피해, 여름철 빈번한 집중호우로 고품질 배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기에 맞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명품 나주배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장성군 향토음식 꽃시감·집장·단술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 추진

장성군이 국제 향토음식 보호활동 '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를 추진한다. 등재할 품목은 장성 꽃시감과 집장, 단술이다.

199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는 소멸 위기에 처한 음식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사라지지 않게 보호·육성하는 세계적인 사업이다. 표준화된 산업식품이 지구촌을 장악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향토음식 △전통적 산물 △장인(匠人) 생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등재 조건은 △지역 생산물 이용 △전통 조리법 고수 △지역 정체성 반영 △일정 양 생산 △멸종 위기 식물 등이다. 현재 전 세계 6159 점, 대한민국에는 111점이 '맛의 방주'에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다. 전남에선 비로약차, 제비쫄떡, 장흥돈차 등 20여 점이 이름을 올렸다.

장성군이 맛의 방주 등재를 위해 발굴한 '장성 꽃시감'은 큰 일교차를 지닌 장성에서 맑은 바람을 맞으며 자란 토종 감이다. 장성꽃시, 장

성상추감, 장성비단시, 장성쇠뜨기 등 8종이 있다. 주로 꽃감으로 만들어 먹지만 감장아찌, 꽃감김치, 감식초, 꽃감떡 등 가공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집장'은 찹쌀을 섞어 만든 고추장으로 고춧잎, 무청 등 사한 채소로 전체 간을 해 짜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에서 만들어 먹다가 인근 동네로 확산되었다고 전해진다.

'단술'은 쌀밥을 엇기름으로 발효해 만든 전통 음료다. 힘든 농사일로 인한 갈증과 허기를 달래줬다. 지금도 장성의 몇몇 음식점에서는 전식, 후식으로 단술을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서 '남도 맛의 방주와 장성 향토음식 시식회'를 열어 이목을 끌었다. 군의 향토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관계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장성=김수권기자

곡성군, 갤러리 107 제3회 생연필 드로잉 단체전

곡성군이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생연필 드로잉 단체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생연필 드로잉회의 3번째 정기전이다. '생연필'은 '생각하는 연필'의 줄임말이다. 이들은 인체 드로잉을 비롯한 생활 속 일상, 희노애락이 담긴 인체의 움직임을 드로잉 기법으로 자유롭게 풀어낸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서현호 작가의 지도 아래 강미희, 권미

양, 김미순, 김윤정, 김임숙, 박현희, 안정렬, 윤연희, 이금주, 이인숙, 장종국, 정방호, 정영규, 정은순 회원 등 14인이 작품을 출품한다.

서현호 작가는 "전시회를 위해 작업에 정진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해가 갈수록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일 수 있는 생연필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 월산면, 행락지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추진



월산면 이장단(단장 국중문)과 공무원 등 25여 명이 지난 1일 행락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이장단과 공무원은 용흥사 계곡 하천 주변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월산

면 만들기를 위해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 환경캠페인도 함께했다.

국중문 이장단은 "용흥사 계곡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구 면장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해주신 이장단과 마을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면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미술 교실 유화반' 3강좌 운영

화순군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관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실 유화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 있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교육장작실에서 군민 취미활동 장려를 위해 마련된 유화 그리기 수업은 유화의 기본부터 배우는 시간이다.

하지만 단순한 작품 그리기가 아닌, 미술관 작품감상을 통해 감상법을 익히고 유명작가의 모자를 통해 유화 기법과 색채에 대한 탐구, 야외 풍경 그리기 수업 등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작품 제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완성된 작품은 수강생들과의 서로 작품감상 및 대화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도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은 9월 13일(수)부터 12월 20일(수)까지 15회차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미술 교실 유화반' 수강 신청 기간은 9월 6일(수)부터 9월 11일(월)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명이다. 미술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8만 원이다.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누리집(<http://sbart.or.kr>)에 접속하여 교육프로그램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당일 오전 9시부터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화순읍 진각로 249-8)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선착순 접수만 가능하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추진...5억8천만원 투입

구례군은 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37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 법인, 기관이다.

군에서 2차로 보급하는 전기 승용차는 28대(일반차)이며, 전기 화물차는 9대(일반 7, 택배 2)이다. 보급 차종에 따라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원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3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95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자동차 대리점과 구매보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대리점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례군청 환경과로 문의해서 확인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50 탄소 ZERO 청정 구례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마일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